



平山申氏宗報

(04555)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22 평산신씨대종중
TEL : 02-776-6111, 6151, 7978 · FAX : 02-776-7990
홈페이지 www.pyeongsan.com · E-메일: pyongsan777@naver.com

출판소 033-243-2076
표재 053-985-1330
용산단 061-363-1495
덕양서원 010-8762-7799



발행인 신철수
편집인 신금철
인쇄인 송은하



시조묘소 계묘년 추향대제 봉행

고려태사 개국공신 시조 장절공(휘 송겸)의 위덕을 받들고 추모하는 계묘년 추향대제가 10월 23일(음 9월 9일) 11시에 전국에서 오신 500여명이 참제한 가운데 춘천 시조님 묘소에서 봉행되었다.



전일 입제한 헌관 및 제집사는 각자의 제례절차를 숙지하고 당일 07시 영당에 서립한 가운데 대종중 철수(澈秀) 회장이 입실하여 분향의식을 봉행하였다.

09시40분 집례의 안내로 3헌관은 동상을 참배한 후, 10시 전사청에 헌관 및 제집사와 참례자가 모인 가운데 대종중 회장(澈秀)은 인사말에서 “장절공 시조님 추향대제에 함께 해주신 내빈과 종원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드리고 시조님께서 나라를 위해 위왕대사하신 기록한 뜻을 새기면서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시조님의 음덕을 듬뿍 듬뿍받으셔서 여러분 가정에서 늘 강녕하시고 편안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내년에는 더 많은 종원들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강원특별자치도 화수회와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어 바쁜 시정임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육동한 춘천시장님을 비롯한 외빈과 참석하신 상임이사 이상 내빈을 일일이 소개를 하였다.

춘천시장장은 인사 말에서 “오늘 평산신씨 시조이신 장절공 향사에 전국에서 참여해 주신 어르신들을 환영하고 감사드리며 춘천시장으로서 우리 서면 방동리에 신송겸 장군 묘역이 있음에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춘

천시민과 평산신씨 후손이 더불어 장절공을 선양하면서 춘천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어 문철(文澈) 제례·계보위원장은 분정발표와 헌관 및 제 집사를 소개하였다.

이날 분정은 다음과 같다. 초헌관 영재(홍천군수), 아헌관 창열(부산·경남화수회장), 종헌관 중균(인천시



[평산신씨미래포럼 접수, 명찰달기]

화수회장), 집례 문철(제례·계보위원장), 동원(대종중 제례위원), 대축의호(대종중 제례위원), 알자 우현(대종중 제례위원), 현규(강원도화수회) 진설 현목(강원도화수회) 정연(대종중 제례위원), 봉향 국철(대종중 제례위원), 봉로 성호(대종중 제례위원), 봉작 장섭(춘천시), 전작 영기(춘천시), 사준 동복(춘천시), 산신제 축관 최지희(서면 면장), 집례 현규(강원도화수회)가 분정되었다. 한편 평산신씨 미래포럼(자생단체) 회장 문철과 회원들은 자체 인력 및 예산으로 이번 추향대제에 참석하는 전 종원에게 시조님의 후손으로서 자긍심과 평산신씨로서 연대감을 심어주기 위해 명찰 달아주기를 함으로서 처음 만난 종원들 간 소통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드론촬영도 하였다.

◆ 성금 및 화환 헌성자 ◆

【성금 : 1,605만원】

□ 개인 : 945만원

(단위 : 만원)

명	금액	비고	명	금액	비고
초헌관	200	홍천군수 영재	아헌관	100	부산·경남화수회장 창열
종헌관	100	인천시화수회장 중균	헌택	30	밀지공(서울 도봉구)
홍균	20	대종중 고문	용수	10	대종중 고문
길순	10	대종중 명예회장	홍현	100	충남 공주 의당로
정용	20	서울시화수회장	현웅	10	전부산경남화수회 회장
우현	10	문화공파 진사공종중	수철	10	참판공파
광철	10	춘천(문화공파)	영순	10	이상공 서울
현철	10	이상공파	형식	20	대종중 부회장

상욱	10	문화공파 (홍천)	근영	20	문화공파 전첨공 증중
현덕	10	전서율시화수회장	언식	5	밀직공증중 회장
승철	5	사간공파 총무	현대	10	제정공파 봉래공 증중
홍식	5	문화공파 (문경)	현혁	5	문화공파 부산경남화수회
희철	10	대중중 편집증규위원	현우	5	밀직공파 하남시
찬균	5	진사공파	재봉	10	사간공파 (홍천)
동완	10	제정공파 음성 한들증중	동술	5	문화공파 (부산경남화수회)
경철	10	문화공파 (문경)	상규	10	문화공파 (부산경남화수회)
택용	5	사간공파 옥포문중	근철	10	제정공파 (대구 동구)
창귀	5	표충재 증중	상섭	5	사간공파 (대구 달서구)
동헌	5	사간공파 (서울 금천구)	웅균	5	제정공파 악목증중
명철	5	문화공파 (문경)	현대	5	제정공파 악목증중
인석(체)	5	문화공파 (서울 노원구)	형섭	10	사간공파 (미래포럼)
수동	10	강원 홍천	동길	10	문화공파 (광주 북구)
동완	10	봉래공증중 총무	우식	5	문화공파
면순	5	충주시화수 회장	갑철	5	제정공파 (대구 수성구)
원주	5	사간공파 (부산경남화수회)	동춘	10	사간공파 (취원문중)
행수(향)	10	문화공파 (부산경남화수회)	동한	10	사간공파 (대구 달서구)
계			₩ 9,450,000		

■ 단체 : 660만원

(단위 : 만원)

명	금액	비고	명	금액	비고
경주 흥림공증중	20	사간공파	봉래공 증중	50	제정공파
전첨공 증중	10	문화공파	정언공파 증중	30	
정언공파 구한공증중	10		평택 광덕향 증중	50	사간공파
현령공 증중	10		인천시화수회	10	
리더스클럽	20		한성문공파 증중	20	
김포송지공 필주파증중	20		장령공파 증중	10	포천
표충재 증중	30		진사공파 증중	10	
사간공파 증중	10		제정공파 음성 한들증중	10	
사간공파 중추공 증중	10		문화공파 오갑관운증중	10	
대전충남 화수회	10		평산신씨 미래포럼	30	
전서공파 증중	10		이상공파 증중	20	
용산단 증중	10		사간공파 매곡증중	50	대구 달성군
문화공파 진사공증중	10	기평 청평면	창원시 화수회	20	
부산경남 화수회	20		정언공파 참의공증중	10	
정언공파 이간공 증중	10		가평군 화수회	20	
사간공파 포항노곡 증중	30		사간공파 천성공증중	10	
사간공파 평택구룡 증중	30		광주전남 화수회	10	
판시공파 증중	10		전북 화수회	10	
계			₩ 6,600,000		

■ 화환 헌성

대중중 명예회장 갑식, 정언공파증중, 사간공파증중, 제정공파증중, 용산단증중, 표충재증중, 덕양서원증중, 서울화수회, 대전충남화수회, 전북화수회, 광주전남화수회, 대구경북화수회, 홍천군화수회, 평산신씨미래포럼

제218차 상임이사회

제218차 상임이사회를 10월 11일 11시 한일옥 지하1층에서 개최하였다

상임이사 총31명 중 24명과 용수, 흥균고문님이 참석하였다.

지난 9월26일자 덕양서원 회장으로 선출된 동진 상



임이사를 소개하고 이어서 장군단 기념비 비문(碑文) 전면을 제외한 3면을 제거했다는 내용과 신승겸 장군 배 제17회 곡성군수기 전국 남,여 궁도대회 기념타을 지원사항을 회장(澈秀)이 설명하고 의결사항 의안 제1호 장군단 비문 결정의 건은 10월 말까지 각 파 증중, 유적지, 시도화수회장의 의견을 다시 접수해서 차기 상임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하고 의안 제2호 장 절공 도록 추진 사항의 건은 율곡연구원에서 수령한 100권에 대하여 발간 경위, 과정, 내용 등의 안내문을 작성, 동봉하여 배부 활용하는 방안을 다수가 찬성 하여 의결되었다.

회의 당일 호균 상임이사가 제안한 춘천 요선동 신 축건물 비용 지출 내용과 장군단 성역화사업 추진위 원 징계 본안소송 관련 질문사항 및 평산신씨 시조장 절공 도록 관련 질문사항에 대하여 철수회장의 자세 한 내용 설명에 이어서 권채 감사가 2023년 2월에 2022년도 예산지출 및 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사를 하고 2023년 3월8일 제216차 상임이사회에서의 질의 답변과 2023년도 정기총회시 자료를 배부하고 질의 답변 후, 최종적으로 가결된 사항임을 설명을 한 후, 회의를 마무리하고 산회하였다.

정·부회장, 감사 연석회의



2023년 9월21일 11시 대중중 회의실에서 개최 된 정·부회장 감사 연석회의에 철수(澈秀) 회장, 문철 (文澈), 형식(亨湜), 동하(東夏), 동석(東錫), 동선(東

鮮), 현대(鉉大), 용철(龍澈), 상섭(尙燮) 부회장과 권채(權彩) 민철(民澈) 감사가 참석했다.

그 동안 장군단 비문안 검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비문안을 기초로 권채(權彩) 감사가 일부 수정한 내용을 상임이사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고 장절공 도록은 정.부회장, 감사회의에서 제1안 율곡연구원에서 발행한 원본을 배부하는 방안, 제2안은 율곡연구원에서 발간한 발행취지 및 경과, 인수경위 등 안내문을 작성, 도록에 첨부하여 배부 활용하는 방안, 제3안은 율곡연구원과 협의된 도록 명칭을 수정하여 재인쇄 후, 배부활용 방안을 상임이사회에 상정하여 의결하기로 하였다.

제3차 제례 · 계보위원회 개최



[문철 위원장]

계보년(2023년) 시조 장절공 추향대제를 봉행하기 위한 제례위원회가 9월 11일 11시 대중중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제적위원 12명중 10명이 참석하여 성원보고 후 대중중 회장(澈秀) 인사가 있었다.

대중중 회장은 제례 · 계보위원회는 연 2회 시조님 향사와 대중중 종원의 계보를 검정확인하는 일과 족보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중중에 기여하고 있음을 치하하고 추향사 준비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문철 위원장은 개회 선언하고 시조님 추향대제에 우리 제례위원들은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전 향사에 잘못된 점을 교훈삼아 향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하였다.

회의에 앞서 문화국장은 경과보고에서 향사준비에 미비하고 보완할 사항을 설명하고 제안 설명을 하였다. 이어 위원장은 안건을 상정하고 영당의식 분정, 헌관 및 제 집사분정 건을 상정하고 초헌관은 춘천시장이 섭외 중에 있으므로 추후 통보하고 아헌관에 창열(昌烈) 부산 · 경남화수회장, 중헌관에 중균(重均) 인천시화수회장을 분정하고 집례를 제외한 제 집사분정은 용철(龍澈) 강원도화수회장에게 위임하였다.

이어 제수 봉송 건, 당일 시간계획, 제례 예행연습, 최종점검회의, 참제자 숙식문제 등 제반 행사절차에 대해 논의 후 폐회하였다.

편집 · 종규위원회 개최



[동석 위원장]

2023년 9월 20일(수) 오전 11시 편집 · 종규위원회 회의에서 동석위원장, 흥현 부위원장 칠균, 사현, 현우, 희철, 정식, 익순, 호철, 상무위원이 참석하였다.

위원장(東錫)은 대중중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70%는 편집 · 종규위원회에서, 20%는 대중중에서, 나머지 10%는 상임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수정이나 개정, 보완되기를 희망한다 하고, 1차로 대중중 규약과 선거관리 규정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위원들 개별적인 의견을 돌아가면서 한분씩 발표를 하였고 발표된 의견을 이메일로 위원장에게 보내달라고 당부하고 보내준 내용을 취합하여 차기 회의시에 논의하기로 하였다.

재산관리위원회 개최

재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13일 회의에서 재산관리위원으로서 대중중 부동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답사를 건의함에 따라 9월14일~15일 양일간에 걸쳐 현장답사를 실시하였다.

답사 대상은 춘천 토지 총45필지와 건물 2개소, 시조 묘역일원과 수원 건물1동으로 1일차 춘천에는 동원, 경섭위원을 제외한 위원장 동선, 부위원장 현화, 언권, 창귀, 용철(한성공중중), 상준, 동천, 형섭위원이 참석하고 2일차에는 언권, 상준, 동원, 경섭, 형섭위원을 제외한 5명이 참석하였다.

1일차 춘천에는 15인승 차량을 임차하여 춘천시 현암리-시조묘역-신매리-요선동-중앙로 2가를 답사



[동선 위원장]

하여 대중중 회장으로 부터 현황 설명이 있었고, 2일차 수원 건물은 수원시청역에 개별 집결하여 광복 빌딩을 답사, 대중중 회장의 현황 설명을 들었다.

답사 결과 재산관리위원회는 춘천 중앙로2가에 소재한 순산부인

과 건물은 위원 대다수가 위치, 용도, 시세,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규 취득을 잘했다는 의견이었고, 수원 광복빌딩은 복도, 계단 등 임차인들의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아쉽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중중은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장군단 비(碑) 문안 검토 회의



장군단 비(碑) 문안 검토 회의가 1차(6.21) 2차(7.26), 3차(8.16) 4차(9.4)에 걸쳐 대중중 회의실에서 대중중 회장, 각 분과위원장 등 6명이 참석하였다.

대중중 회장(澈秀)은 인사 말에서 그 동안의 경과와 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장군단 성역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서 비문(碑文)관계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 성원해 주신 종원들에게 실망을 주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하고 이를 위해 4개 분과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가 된 기념비 문안을 재 검토, 보완하고자 한다면 위원들께 고견을 내어 주시기 바란다고 하였다.

그 동안 회의에서 비(碑) 문안의 공정성 확보와 갈등 요인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대중중과 호남의 원로 대표와 추진위원 대표가 합의하여 추진하는 방안, 비(碑) 문안에 역사적 유래나 전설을 기록하지 말고 추진 경과를 기록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었다

이에 대중중 회장은 각 위원들께서 나름 작성한 문안을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고 정·부회장, 감사회의 및 상임이사회에 올리겠다 하고 곡성에서 개최되는 신승겸 장군, 곡성군수기 전국 남,여 국궁대회에 대해 설명하고 장절공도록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대중중 장학생 2학기 장학금 지급

2023년도 대중중 장학생으로 선발된 장학생에게 1학기에 이어 2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가. 선정인원 : 20명

나. 지급대상 : 선정인원 전원

다. 지급일 : 2023년 8월 18일

라. 1인 지급액 : 100만원(총 2000만원)

명	학 교	성별	학년	명	학 교	성별	학년
지우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남	2	주연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여	3
현성	고려대 경영학과	남	2	선화	고려대 경영학과	여	3
명섭	고려대 사회학과	남	2	제학	고려대 전기전자공학과	남	3
상우	경북대 전자공학과	남	3	서현	경희대 의과대학 의학과	여	2
지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남	3	재희	경희대 식품생명공학과	여	2
선영	이화여대 조형예술대 조소	여	3	동선	홍익대 디자인컨버전서학	여	4
영훈	경희대 물리학과	남	2	우철	가천대 건축학과	남	2
아영	강원대 국제무역학부	여	4	하영	세명대 스마트IT학부	여	2
선희	중앙대 문예창작과	여	3	동빈	고려대 보건환경융합과	남	3
태영	광운대 스포츠융합과학과	남	3	수진	서울여대 원예생명조경학	여	4

숭의전(崇義殿) 추향대제 참례



2023년 10월 1일(일) 숭의전(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야미산 소재)에서 고려기원 일천일백육년 추향대제가 고려 태조 왕건 외 3황제와 시조 장절공 신승겸 장군 외 15공신의 향사를 주악이 연주되는 가운데 경건하고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숭의전은 조선 태조 원년(1392년) 고려 원찰이었던 마전군(현 연천군) 양암사(仰巖寺)터에 태조 왕건의 사묘(祠廟)가 건립되고 정종 원년(서기 1399년) 왕건 외 혜종, 성종, 현종, 문종, 원종, 충렬왕, 공민왕 등 7왕을 추가로 배향하였다.

그 뒤 세종 7년(서기 1425년) 조선 중묘 에는 5왕을 모시는데 고려

조 사당에 8왕을 모시는 것은 온당하지않다 하여 고려 태조 왕건, 현종, 문종, 원종 4왕을 모시고 조선조 제5대 문종 대에 사묘를 숭의전이라 이름짓고 고려조에 공헌한 태사개국공신 장절공 신숭겸, 무공공 복지겸, 충렬공 홍유, 충절공 유검필, 무열공 배현경과 장위공 서희, 인헌공 강감찬, 문숙공 윤관, 문열공 김부식, 위렬공 김취려, 문정공 조충, 충렬공 김방경, 문충공 안우, 충렬공 이방실, 문충공 김득배, 문충공 정몽주 등 16공신을 함께 제향하고 2023년 춘향대제부터 한 상(床)에 8변 8두로 진설하고 16공신 후손 대표가 순번제로 독축하고 있다.

이 날 향사는 초헌관으로 연천군수 김덕현, 아헌관 경주김씨중앙종친회 부총재 김원기, 종헌관 숭의전 전감 왕윤식, 봉조관 전(前) 숭의전 전감 왕기준이 분정되었다. 배신청의 평산신씨 분헌관은 봉철(鳳澈) 평산신씨미래포럼(자생단체) 회장이 분정되고, 16공신 후손을 대표하여 대종중 문화국장이 독축하였다.

숭의전은 1971년 12월 28일 국가사적 제223호로 지정되고 향사는 매년 2회 4월과 10월 첫째 일요일 11시에 정기적으로 봉행한다.

전자대동보 수단신청 안내

나는 누구일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로부터 시작하니 부모 또한 조부모, 증조부모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으로부터 비롯되어 세상에 태어나고 조상은 나의 뿌리이다.

내 속에는 조상도 계시고 후손도 있으니 내가 있으므로 조상을 세상에 드러낼수 있고 또한 후손에게 나를 물려줄수 있다.

나의 생각이 조상님과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니 바르고 떳떳하게 사는 것이 조상에 대한 도리요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전자대동보 수단철차

- 시기 : 연2회(상, 하반기) 접수
- ※ 전반기 : 1월 ~ 5월 / 6월 정단
후반기 : 7월 ~ 11월 / 12월 정단
- 절차
 - 신청자(증빙서류 구비) ⇒ 각 파종중(수단지 접수, 작성) ⇒ 대종중(접수, 검토, 작성) ⇒ 업체 정단요청 ⇒ 전자대동보 등재(반기 익월 초순)
 - ※ 구비서류 : 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학위증, 자격증 등
- 참조 : 평산신씨대종중 홈페이지 “전자대동보” 수단신청 안내(양식)
- 문의 : 각 파종중 및 대종중

파종중 · 화수회 소식

온수감공파 역대 도유사(회장) 공덕비(功德碑) 제막식



온수감공파 역대 도유사(회장) 공덕비(功德碑) 제막식 2023년 8월 10일(목) 11시, 서천군 비인면 울리 울리사(충남 문화재 303호)에서 내빈과 종원 60여명이 참석하여 “평산신씨 온수감공파 종중 역대 도유사(회장) 공덕비”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온수감공(溫水監公) 휘 기(淇)께서는 한림공의 셋째 아들이요 온수현 감무(監務)를 지내고 전리판서(典理判書)로 증직되었으

며 울리사에 추배(追配)되었다. 이곳은 공의 장남이신 16세 휘(諱) 용(龍)께서 낙향하였다.

諱 용(龍)의 조부되시는 14세 휘 혼(琿)께서 조선 새 왕조에 불복을 결심하고 사간공 호(浩), 대제학공 연(演), 온수감공 기(淇) 3형제를 불러 고려 개국공신 시조 신숭겸의 후손으로서 고려에 대한 절의를 지키고자 두문동에 들어갈 뜻을 밝히자 이에 동의하고 삼형제가 세상과 절연하면 선영과 봉제사와 후손을 지

킬수 없으므로 사간공 호(浩)를 남기고 3부자가 고려 유신들과 함께 불을 피하지 않고 순절하였다. 순절할 당시 공(公)은 28세였다.

사후(死後) 16세 휘 용(龍)께서 장성하여 두문동에 들어가 부친의 의관으로 초혼(招魂)하여 신주를 모시고 이곳 서천군 서면 월향산(견좌)에 모셨다.

이후 부친을 사모하며 학문에 힘쓰면서 유훈으로 자손들에게 과거에 나가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자손들은 비인면 울리를 중심으로 180년 동안, 벼슬길을 멀리하고 후학들을 양성하신 조상님들의 얼을 계승하며 번영과 미래를 소망하는 종원들의 마음을 담아 초대 도유사 석구(錫九)는 울리사(前 세덕사)를 1850년 영하(永河), 석정(錫禎)등과 공조하여 창건하고 시조 장절공 신승겸 장군, 참판공 신철(申澈) 승지공 신오(申澳) 3위를 1851년 봉안하였다.

2대 영하(永河) 3대 석정(錫禎) ~ 20대 재식(載湜) 도유사에 이르러 대종중 규약 개정으로 도유사가 회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 21대 상우(相雨) 회장 재임 중에 종원들의 중지를 모아 역대 도유사의 공덕을 기리고 중종의 구심점을 삼고자 “평산신씨 온수감공과 중종 역대 도유사(회장) 공덕비”를 건립하게 되었다.

이날 행사는 태풍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대종중 회장(철수)이 보낸 축하 화환외 수점의 화환이 진열된 가운데 서천군 군의회 의장(김경재)을 비롯해 충청남도 도의원(신영호, 전익현) 전 충청남도 문화체육부지사(나소열)의 축사와 대한노인회 서천지회장(김운태) 등 지역 내빈과 문중의 어르신, 종원이 참석하여 성원해 주었다.

신상우 회장은 태풍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과 종원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린다고 인사를 하였다.

용산단지 2집 발간 고유제 봉행



지난 2023년 8월 5일 시조 탄생지인 용산단소에서 용산단지 제2집을 발간함에 따라 고유제를 봉행했다.

고유제는 현덕 발간위원장, 현대 용산단유적지 중추회장, 발간위원을 비롯하여 20여명의 광주·전남지역 종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건하게 진행되었다.

봉헌은 호남지역 원로 종원인 형철(亨澈) 고문이 제단에 부복한 가운데 고유문이 낭독되었는데 시조의 숭고한 충절을 가슴속에 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고유문에서 「시조께서 순절하신 1096주년을 맞아 시조님의 충절을 알리고 후손들이 계승하고 애족할 수 있도록 용산단지 제2집을 발간하게 되었음」을 고(告)하고 「시조님의 한량없는 음덕의 기(氣)를 받아 후손들이 번성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사회와 국가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추앙받는 가문이 되게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였다.

용산단지 제2집은 용산단지 제1집이 1963년 발간되고 60년이 지난사이 그 동안 시조님 탄생 유허지 발굴 보존, 전남도 문화재 등록, 탄생지 성역화 등 사적(事蹟)을 정리 등재하여 후세에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 용산단지 제2집 발간위원회를 2021년 12월에 결성하고 위원장에 현덕(鉉德), 부위원장 형식(亨湜), 위원 동길(東吉), 감수 형철(亨澈), 총무 영걸(泳杰), 재무 사현(士鉉)을 위촉했다.

동 위원회는 그 동안 방대한 자료를 수집과 컴퓨터 편집작업을 수 차례에 교정하여 탈고하였으며 9월초에 인쇄본이 출고될 예정으로 용산단지(龍山壇誌) 제2집(輯)은 전국 향교, 대학교, 도서관에 비치하고 현성금을 보내주신 단체와 개인에게 발송되며 10월 26일(음9월12일) 용산단 향사 후에 배포될 예정이다.

곡성 덕양서원에서 추향제 및 회장 선출



[동진 회장]

곡성의 성황신이며 고려개국 1등 공신인 장절공 신승겸장군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는 2023년 추향제가 9월26일(화) 덕양서원중추 인현 회장(조선대 명예교수) 주관으로 덕양서원(곡성군 오곡면 덕산리 소재)에서 오전 11시에 거행됐다.



이번 추향제는 지역유림들과 본 손들이 참제한 가운데 흘기에 따라 경건하게 봉행하여 장절공 신승겸장군의 충과 절의의 정신을 기렸다.

지난 8월 25일 제관천정에 따라 지역유림들이 분정을 맡아, 초헌관 김평호(광주), 아헌관 유종표(전남 곡성), 종헌관 한종춘(남원향교 전교), 집례 송태중(광주), 축관 양찬호(전남 곡성), 찬인 엄찬영(덕양서원 장의, 한국학호남진흥원) 그 외 제관은 송문갑(남원) 등 유림들이 각각 분정되었다.

본 손 참제자로는 각 파종중, 시도화수회, 전임 임원을 포함한 예하종중의 종원 40여명과 곡성군수와 각 향교에서 성금과 화환을 보내왔다.

덕양서원은 1589년(선조 22) 지방유림의 주도로 창건하여 시조님의 위패와 영정을 봉안 후 1695년(숙종 21) 덕양(德陽)이라 사액되어 선현 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매년 음력 2월과 8월 중정에 춘·추향사를 봉행한다.

한편 덕양서원종중은 전일 입제한(25일 20시) 임원과 종원 37명이 참석하여 규약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신인현 회장의 사퇴에 따른 신임 회장 선출건을 상정하여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투표 결과 동진(밀직공, 35세)종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신임회장은 남원화수회 사무국장, 밀직공과 전북 회장, 덕양서원, 용산단종중 감사를 역임하고 대중중대의원 장학·상벌위원직에 있으며 넓은 포용력과 결단력으로 종사에 솔선수범하여 왔다.

신임회장은 인사말에서 “수백년 동안 시조님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한 덕양서원의 회장이라는 무거운 자리를 맡게되어 두려운 마음이 든다”라 말하고 “선, 후배 종원님들의 성원과 뜻을 받들어 유림계와 유대를 강화하여 명망있는 서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임회장의 임기는 규약 12조에 따라 2025년 3월 까지 전임자의 잔여 임기다. 기타 안건으로 1979년(고)신해식 종원(2022년 작고)에게 최초 임대한 이후 45년간 이어져 내려온 종토 임대 문제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철저히 관리할 것을 결의하고 21시 35분에 폐회하였다.

◆ 제수비용 및 헌성금 내역 ◆

■ 제수비용

내역	금액	내역	금액
제물 및 준비 용품 구입비	394,860	향사지원 차량 유류대	200,000
제수품 준비팀 중식대	42,000	덕양서원 마당 제초제비용	165,000
소금, 화니홍어백화점	5,000	제관 13명 거마비	750,000
전일입제 식비 및 중식 100인분	1,200,000	제관천정준비물 백사비	9,800
광성상회 양말, 속옷 등	289,500	향사 후 처리 팀 차값	18,000
해풍상회 어해 제수품	25,000	덕성필방, 한지 등 구입	64,000
무, 미나리 등 제수품	15,000	향사 전자안내장 발송비	244,980
오복식육점, 소고기	36,000	제관천정 식대, 화랑궁	149,000
창성상회, 조, 쌀	79,000	제관 망장 송부 우편료	36,200
풍년상회, 오징어, 육포, 밥	359,000	향사 안내장 발송우편료	138,840
옛날토종 제수품	60,000	기념품, 타올대금	450,000
유림 3명 거마비, 2일	500,000	향사당일 봉사자 거마비	200,000
제관천정 시 거마비	750,000	식사배송 차량 및 봉사	150,000
덕양서원 관리소장 준비비	200,000		
소 계	3,955,360	소 계	2,575,820
합계			6,531,180

■ 헌성금 내역

내역	금액	내역	금액
신철수 대중중 회장(계좌입금)	500,000	곡성군화수회	100,000
이상철 곡성군수(계좌입금)	500,000	신동진 남원	100,000
신동선 표충재중중 회장(계좌입금)	100,000	신동열 충남 금산	100,000
신영철 영암화수회 회장(계좌입금)	100,000	신동근 고창	50,000
신동언 장군단종중 도유사(계좌입금)	300,000	남원화수회	100,000
신현대 경기 고양시(계좌입금)	100,000	신정현 해남 백은공중중 회장	200,000
신근욱 남원	50,000	신사현 광주전남화수회 회장	300,000
신영창 영광화수회 회장(계좌입금)	100,000	신영남 전북 고창	50,000
신옥군 충북 진천(계좌입금)	500,000	신현대 용산단종중 회장	300,000
신현실 전남 순천(계좌입금)	50,000	신용환 광주	100,000
신용수 대중중 고문(계좌입금)	100,000	신기호 덕양서원 관리소장	50,000
신주호 남원 서도정미소(계좌입금)	200,000	신용기 광주	50,000
신형식 한성윤공파 회장(계좌입금)	100,000	신규현 해남군화수회장	100,000
신력현 전침공중중 회장(계좌입금)	200,000	신동우 광주	50,000
신삼식 곡성군화수회장	100,000	신유섭 고창, 덕양서원 부회장	100,000
신현덕 전 덕양서원 도유사	50,000	신영걸 광주	50,000
신기창 곡성 오곡	50,000	신상남 전 광주-전남 화수회장	100,000
신명식 경남진주화수회장	100,000	신일철 남원	100,000
신양규 남원	50,000	신하섭 광주	50,000
소 계	3,250,000	소 계	2,050,000
총 계			5,300,000

모영재(慕影齋) 향사 봉행

자연경관 속에서 청명한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가을과 함께 평광 끝사와 빨갛게 익어가는 모영재(대구 동



[동선 위원장]

구 도평로 905번지 소재)에서 지난 계추(季秋)초하루(10월15일)추향제를 봉행하였다.

집례(河均)창홀에 따라 헌관 및 제집사 분정은 초헌관에 중철(中澈), 아헌관 근섭(根變), 종헌관 상길(相

吉), 축관 동필(東必), 이하 제집사가 분정되고 소개가 있었다.

대중중 회장(澈秀), 용산단중중 회장(鉉大), 사간공파 중중 회장(東夏), 덕양서원중중 회장(東珍), 제정공파 회장(亨燮), 부산·경남화수회장(昌烈) 창원화수회장(喜澈), 진주화수회장(命植), 약목중중 회장(甲湜), 장군단회장 동언이 보낸 화환이 진열된 가운데 11시 제례를 시작하는 집례의 창홀에 따라 초헌관은 진설된 제상을 점시하고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망료례 순서대로 엄숙한 분위기 속에 향사를 봉행하였다. 동선(東鮮)회장은 인사말에서 원근에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많은 종원이 함께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오늘 시조님의 향사를 계기로 종원간 우의를 돈독히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다.

이어서 표창재에서 준비한 뷔페로 점심식사와 환담을 나눈 후, 초헌관이 준비한 선물을 받아들고 귀가하였다.



◆ 헌성금 내역 ◆

■ 개인

명	금액	비고	명	금액	비고
동 선	200,000	표창재 회장	원 섭	100,000	
중 철	1,000,000	초헌관(창원)	응 철	200,000	매곡중중 회장
근 섭	500,000	아헌관(구미)	창 귀	100,000	
상 길	200,000	종헌관(논곡)	창 열	100,000	부,경화수회장
응 균	100,000		창 울	100,000	대구 동구

갑 철	50,000		춘 섭	50,000	
경 철	50,000	문경	택 용	50,000	대구
길 현	50,000		하 균	100,000	
대 철	100,000		학 균	100,000	
동 술	50,000	부산	현 기	50,000	
동 언	100,000	장군단	현 득	50,000	
동 하	100,000	대경화수회장	현 수	100,000	
명 환	100,000	거창	현 중	50,000	
무 승	100,000		홍 식	50,000	
미 해	50,000	영천	홍 조	50,000	
상 섭	100,000		효 철	50,000	
상 태	100,000	문경	명 균	50,000	
승 철	50,000		영 은	100,000	
용 환	100,000		계	4,550,000	

■ 단체

명	금액	비고	명	금액	비고
대중중	300,000	회장 철수	부산,경남화수회	200,000	회장 창열
용산단	100,000	회장 현대	제정공파 중중	100,000	회장 형섭
진주화수회	100,000	회장 명식	계	800,000	

서울특별시 화수회 회장단 회의 개최



[정용 회장]

서울시 화수회는 지난 5월 30일 2023년도 제52차 정기총회에서 정용(正龍) 회장이 선출된 후, 대중중에서 제13대 대의원으로 위촉된 10명을 대상으로 7월 11일 상견례 겸 화수회가 당면한 현안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하는 것을 시작으로 9월 1일 대중중 회의실에서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재직회장단 18명중 14명이 참석하여 개회를 선언하고 회장 인사후 명예회장, 고문, 수석 및 부회장에게 선임장 및 위촉장을 각 각 수여하였다.

이어 대중중 회장(澈秀)은 격려사에서 그 동안 서울 화수회 전임 집행부를 격려하면서 미흡한 부분에서는 열정적으로 조직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는 정용 회장을 중심으로 단합하여 화수회 발전에 노력해 달라 부탁하고 새로 출발하는 회장단 여러분에게 축하를 보내고 건투를 빈다고 하였다.

이어 현덕 명예회장의 격려사와 회장단 각 개인을 소개하는 상견례가 있었다.

안건은 1968년 서울화수회가 규약을 제정 후 6차례에 걸쳐 개정하고 오늘은 제4조 사무소 위치를 서울특별시내에 둔다는 조항을 서울 중구 수표로 22 아세아 빌딩 801호로 변경하는 안을 비롯하여 제6조 임원은 부회장은 15인 이내로, 감사 2인, 상임이사 50인 이내로 하는 것을 비롯하여 제7조 임원의 직무, 제10조 회의 종류, 제12조 회장단 회의의 일부 항목을 개정하는 안건과 기타 화수회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상임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였다.

회의를 마치고 오찬을 함께하면서 덕담과 더불어 앞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하였다.

제14회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



지난 10월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대전광역시 중구가 주최하고 대전효문화뿌리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뿌리공원 및 원도심 일원에서 펼쳐진 제14회 대전효문화 뿌리축제가 성황리에 열렸다.

국내·외를 통틀어 유일하게 ‘효’와 ‘뿌리’라는 차

별화된 소재를 활용해 조상의 얼과 지혜를 찾아보고 효 실천을 다짐하는 체험 교육형 축제인 대전효문화뿌리축제는 ‘대대손손 함께해효(孝)’라는 주제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전통문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첫째날은 순효제례로 시작되는 개막식과 함께 판소리 합창 “범 내려온다”로 유명한 이날치 밴드의 공연에 이어 ‘드론아트쇼와 불꽃놀이’로 축제 첫째날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둘째날 축제의 핵심인 문중퍼레이드는 안영교에서 취타대와 함께 출발하는 어가행렬이 효문화마켓존, 하상주차장, 뿌리교를 통과해 뿌리공원 안내소에 도착하는 행렬에는 전국에서 참여한 100개가 넘는 문중이 깃발을 앞세우고 문중마다의 유래와 문중이 배출한

위인을 스토리텔링으로 엮어 특색있는 퍼레이드를 펼치며 방문객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퍼포먼스도 진행되었다.



작년에 이어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참여하여 효와 뿌리라는 공감으로 하나되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뿌리공원에는 문중의 유래 및 조상의 발자취가 새겨진 244개의 성씨 조형물이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평산신씨는 “개국1등공신 신승겸장군” 평산신씨 대중중의 피켓을 선두로 평산신씨 깃발 뒤에 시조님과 장군복으로 환복한 진섭(상임이사), 광섭(부회장) 뒤로 대전·세종·충남화수회의 “효는 禮와 忠의 기초다”라는 문구의 피켓을 비롯하여 각 지역을 상징하는 피켓과 특히 향저우아시안게임 탁구 여자 복식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평산신씨의 딸 신유빈”의 피켓도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대중중 철수 회장, 당상관 관복으로 환복한 성철 이상공 회장, 정인공파중중회장 문철, 광주·전남화수회장 사현, 갓을 쓰고 양반 복장의 공주시 흥현(전)화수회장과 대전·세종·충남화수회 회장(民澈) 외, 시·군화수회 종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도 대전·세종·충남화수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수일전부터 행사준비에 헌신과 봉사를 하였고 효뿌리 체험마을 평산신씨 부스에는 시조님 존영 사진을 비롯한 홍보물로 꾸미고 방문객을 위해 장군, 공사의 움직이는 우드아트 만들기과 오색 송편과 기념타올을 나누어 주었고 문중퍼레이드에서 7년 연속 대상, 최우수상에 이어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한성윤공파 선원공 중중 송의전 참배 철원일원 평화 안보관광



한성윤공파 선원공 중중(회장 東洙, 총무 貞湜) 중원 30여명은 지난 10월 7일 ~8일 양일간에 걸쳐 경

기 연천에 소재한 승의전과 강원도 철원일원의 평화 안보관광을 하였다.

승의전에 도착한 일행은 관리인의 안내를 받아 승의전을 참배했다.

이날 일행은 배신청에 모셔진 시조이신 태사개국 장절공 신승겸 신위(太師開國 壯節公 申崇謙 神位) 앞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주,과,포를 진설하고 헌주(獻酒)후 일동은 추유보본(追惟報本)의 마음으로 예(禮)를 올렸다.

이어 계획된 일정에 따라 노동당사(국가등록문화재 22호), 은하수 대교, 고석정 꽃밭, 한탄강 드르니계곡과 철원민통선 마을을 안보관광하면서 승조, 평화 안보의 현장을 체험하고 종원들은 친목과 중중화합의 계기가 되었다.

신승겸장군 · 곡성군수기 전국 궁도대회 성료



전남 곡성군에서 개최한 「2023 신승겸장군 기념 제17회 곡성군수기 전국 남·녀 궁도대회」가 3일간의 열띤 경기를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대회는 전

국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1,000여명의 궁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8월19일부터 21일까지 곡성군 활터인 “반구정”에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였는데 곡성군이 주관하고 평산신씨대종중이 후원하는 전국 최대의 궁도대회로 자리매김 되었다.

첫날 개회식은 곡성군수(이상철), 곡성군의회위원장(윤영규) 궁도협회 회장(최종일), 평산신씨대종중 회장(신철수) 등 내외 귀빈과 전국의 내노라하는 궁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곡성군수의 환영사, 곡성군의회 의장의 축사, 격려사에 이어 신철수 대종중 회장은 축사를 통해 “충절과 효심이 살아 숨쉬는 곡성군민과 전통무예 국궁을 사랑하는 국궁인 여러분이 한 자리에서 「2023년 신승겸 장군 기념 곡성군수기 전국궁도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 고장 곡성군은 신승겸 장군이 태어나 성장하면서 무예를 닦으신 곳으로 용산단의 유래 및 시조님과 관련된 전설지를 일일이 소개하고 황해도 평산에

서 하늘 높이 날으는 세번째 기러기의 왼쪽날개를 명증시키는 신궁의 경지에 도달하였다고 하면서 장군은 대구 공산전투에서 위왕대사하여 국가에 대한 충절의 표상이 되었음을 상기시키고 1100여년을 거슬러 곡성의 역사적 인물이신 신승겸 장군 기념 궁도대회를 개최함은 우리 평산신씨는 곡성군민과 더불어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번 행사는 준비과정에서부터 용산단종중 회장(신현대)을 비롯한 임원들이 장절공의 충의정신과 신기에 가까운 궁술을 전국으로 널리 알리는 기회라 생각하고 마네킵에 장군의 투구, 갑옷, 목화를 착용하여 생동감있게 전시하였다.

금년에 처음 개설한 “왕중 왕전”에서 우수한 궁사에게는 전시한 장군의 투구와 갑옷, 목화를 착용한 후 수상하도록 함으로써 장군을 재현하는 분위기를 연출하여 참가자들로부터 박수와 찬사를 받았으며 전국 최대 궁도대회의 브랜드로 위상을 알리고 전 군민의 단합과 궁도인의 발전을 위한 이정표가 되었다.

이번 궁도대회 “왕중 왕전”에는 왕선욱(산청 청호정) 단체전에 부안 심고정, 노년부 김주택(고령 송암정), 장년부 김창근(남해 금해정) 여자부 오향숙(여수 군자정), 실업부 김현전(강진 양부정) 궁사가 각 각 우승하여 상장과 시상금이 수여되었다.



-자랑스러운 평산인 손녀 유빈 금메달!-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탁구 여자 복식에서



유빈(문희 34세)의 할아버지 두균은 문경시 가은읍 출신이며 유빈은 아버지 수현과 어머니 홍미선 사이에 둘째 딸로 출생하였다.

유빈 선수는 어릴 때부터 탁구 신동으로 불리며 두각을 나

타내었고 초등학교 때, 국가 상비군으로 활약 한국탁구사상 최연소 국가대표 출신으로 2022년 도쿄올림픽과 여러 국제대회에 출전, 주니어세계선수권 대회에 2017년, 2018년에 동메달, 2022년 카데트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금 1, 은 1, 동 2개를 수상한 바 있다.

이번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복식에서 언니 전지희와 짝을 이루어 결승전에서 북한 대표 차수영 -

박수경 조와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4대 1로 이겨 금메달을 수상하고 이전 여자단체전, 여자단식, 혼합복식에서도 각 각 동메달을 수상했다.

한편 신두균의 손녀 유빈의 고향인 문경시 가은읍 민지리는 집성촌으로 친인척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가은읍민들은 추석연휴기간이었던 지난 2일 여자복식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따내자 읍내 곳곳에 민지리 “신두균의 손녀 신유빈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탁구 금메달장하다”라는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읍민 전체가 내일처럼 기쁨을 나누었다.

또한 대중중으로 전국의 종원들이 SNS 카톡 등으로 유빈의 쾌거를 알려졌다.

탁구장을 운영한 아버지 덕에 일찌감치 탁구라켓을 든 유빈은 어릴적 TV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깜짝 스타로 떠오르면서 침체기에 빠져 있던 한국여자탁구의 미래를 이끌 주인공으로 성장하기 시작 했으며 14세때 최연소 국가대표 타이틀을 따냈다.

나이



신가균/申可均

그저께부터 TV 첫 뉴스가 세밑 실황이다.

길이라는 길엔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다 서기를 반복한다. 그

모습은 마치 개미가 장서는 형국과 같다는 생각과 함께 어릴 적 풍습이 떠올랐다.

추석이나 설달그믐께만이 아니었다. 대소가 애경사 때면 동네 안 어른들이 “쿵덕~ 쿵덕덕~ ~” 절구 뿜은 쌀가루를 체로 치고 남은 무거리는 되짚기를 했었다. 시루에 김을 올리고, 반죽을 치대고……,

소당께에 지지는 부침개가 자꾸 쪼개졌으면 했다. 부서진 부침개는 아이들 몫이니까.

그런저런 일을 보며 자라는 동안 해마다 나이가 쌓일 때 시국은 어지러워졌다. 전쟁에 휩쓸려 서울에 발을 디딘 이웃에는 미장이 아버지를 둔 노마네, 꿀꿀이죽을 파는 창구 네랑 아래윗집이었다. 휴전 직후인 그때 설. 추석 대목 때마다 제일 바쁜 곳이 떡방아 간이었다. 뽕얀 김이 자욱한 방앗간 밖에는 하얀 보자기로 덮은 쌀 소쿠리가 줄져있었다. 그 줄 중에 손바닥 섬직한 함지박을 지키는 아낙의 남편은 어떤 직업인일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지게꾼 아니면 “무 드렁! ……!”를 외치는 채소 등짐장수일 것 같다. 어려운 형편이지만 제사와 차례를 건넌 적은 없지 싶다.

그런 막일꾼들도 벌이가 좋은 날 어찌 대포 한 잔 생각이 안 나랴. 막걸리 한잔을 여러 모금으로 나눠 마시고 술 묻은 입술을 손등으로 문지르며 “켜!”하고 입맛을 다셨으리라.

그 길로 단골 싸전에 들려 보리쌀 한 되를 샀겠지. 그리고 생선 장수가 지푸라기로 질끈 매주는 자반 고등을 받아 들었을 것이다. 조금 전에 마신 막걸리는 간에 기별도 안 갔으나 술에 취한 척 비틀비틀 걸으면 손에 들려있는 고등어자반이 흔들 흔들 그네를 탔을 것 같다.’ 그런 서민들 거의는 시골내기이지 싶다. 서울 바닥에서 근근이 살면서 고향의 부모님과 소꿉친구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전후복구로 어렵던 당시에 “고속도로”라는 말조차 없었으니 교통여건이 말이 아니었다. 그래도 추석, 설 때면 서울역 승차장은 들끓은 귀성객들로 각다귀판을 방불했다. 그도 그럴 것이 “칙칙 폭폭”하는 기관차인 데다가 웬만한 지방 길은 울퉁불퉁한 비포장에 버스와 승용차가 혼치 않아 귀성은 고생길이었다.

부족한 게 없는 요즘 자가용차로 고향 가는 가족들은 극심한 도로정체로 기진맥진이다. 그러면 서도 때마다 고향을 찾는 것은 질기디질긴 핏줄이 당겨서 일 것이다. 새빨간 까치밥 홍시가 달린 시골집 마당을 텔레비전 화면이 크게 비쳤다. 차에서 내리는 손주들을 반기는 쪽진 머리 할머니가 웃으며 며느리를 껴안는 모습이 정겹다.

저렇게 며느리를 명절 때마다 만나는 시어머니의 속마음은 안온 할런지. 알다가도 모를 게 세상 일로, 찰떡궁합이라 원앙처럼 잘 살던 어느 부부가 ‘취미가 달라, 성격이 안 맞아 이혼이네 파경이네 하는 소리가 남의 일 같지 않아 속을 태우질 지도 모른다.

나 예닐곱 살께 명절 때면 대저에서 공부하는 삼촌과 사촌형이 뉘엿뉘엿 해거름에 여남은 발짝 될 만큼 기다란 해 그림자를 앞세우고 대문 안으로 들어서곤 했었다. 정월 초하룻날 차례가 끝나면 고기꾸미를 한 움큼씩 얹은 떡국에 과줄, 강정…, 등으로 상다리가 휘었다. 떡국, 과줄 맛이 좋기는 하나 그보다는 나이 하나를 더 먹는 게 더없이 기뻐다. 그러면서 아쉬운 것은, 두 살 위라 키가 크고 힘이 센 칠성이를 이기려면 개는 말고 나만 두세 살을 더 먹었으면 했다.

어느 해 정월 초하룻날 신바람이 난 우리 집안의 올망졸망이 예닐곱이 대문을 나섰다. 칼바람에 귀를 감싸고 동동걸음으로 집집을 둘러 넘죽 넘죽 세배하였다. 어느 댁의 할머니는 “오냐! 올해도 병치레 없이 ‘뽕지(빨리) 크거라.’” 덕담을 하고 엿을 내놓으셨다. 그렇게 내가 세배 다닐 때는 아쉽게도 세뱃돈 풍습이 없어 세뱃값이라는 말을 듣도 보도 못하였다.

당시의 여름철 아이들은 아랫도리를 걸치는 등 마는 등. 짚신도 못 신어 맨발이었다. 땀별에 그을려 새까맣고 까칠한 얼굴에 마른버짐이 번져 희끄무레하였다. 세뱃돈 풍습이 없는 것은 내남 없이 가난하여 그랬지 싶다.

옛 말에 인생살이는 ‘풀 끝에 이슬처럼 덧없다.’고 하였다. 지나온 내 나그넷길은 곡절도 좀 겪었지만 돌아보면 괜찮은 연속 그림이다. 어릴 적 설날 아침에 두 살씩 먹었으면 했던 게 후회막급이다.

떡국에 물어오는 나이를 따로 떼어 콧감 꼬치에 꿰듯 꿰어 뒤결 쇠 울타리에 비끄러뻐야 했다. 마음이 헤물러 망설이는 동안 몸속에 겹겹이 쌓인 나이가 쏙덩이로 변했다.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눌러 허리가 굽고 안짱다리가 되었다. 그래도 발 내디딜 힘이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신발 끈을 조이고 발을 “탕! 탕!” 굴렀다. 그리고 절망 하나 덜렁 메고 나섰다. 가보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은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연구

대총증감사·군수공파 회장 권채 34세(법무사)



1. 주택임대차법의 적용범위 (=주거용건물)

(1) 보호법 의미

가.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에게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됩니다. (민법제618조)

나.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를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제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2522 판결)

(2) 대항력 요건 (=주택인도+주민등록)

가. 주택의 인도 ; 주택의 인도는 주택에 대한 점유, 즉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의 인도에는 현실인도,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점유 개정에 의한 인도도 포함된다.

나. 주민등록

(1) 적법한 주민등록 : 주민등록법상의 절차에 따른 ‘유효’한 주민등록이어야 하고, 주민등록은 ‘실체의 거주를 표상’하는 것 이어야 한다.

(3)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점유보조자인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95다30338 판결)

(4) 적법한 양도·전대의 경우

직접점유 후 적법하게 양도·전대한 경우 임차인이나 전차인이 임차인의 주민등록퇴거일로부터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87다카2509 판결)

(5) 공부상 주소 표시와 주민등록의 불일치한 경우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의 경우에는 동·호수를 누락하거나 주민등록상 동·호수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면 그 주민등록은 유효한 공식방법이 되지 않지만(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다4207 판결),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부상 지번(건축물대장이나 등기기록상 지번)과 주민등록상 지번이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한다.

(6) 명의신탁과 대항력

명의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도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95다22283 판결).

(7) 기존 채권의 보증금으로서의 전환과 대항력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이어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47535 판결)

(8)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겸유하는 경우

가. ①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고(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69741 판결), ②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거나 전세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전세금의 일부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은 사유만으로는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한 대항력 행사에 어떤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39676 판결).

나. 임대인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가입 가능

역전세난 속에 임차인이 걱정없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이 보장되게 되었다. 2024년 7월시행 임대사업자

는 의무적 가입하여야 한다.

2. 대항력의 발생시기

가. 원칙적으로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에 발생한다.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함은 다음날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이므로 다음날 주간에 등기가 경료된 저장권에 기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나.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

(1)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임차주택에 저장권, 가압류 또는 압류, 담보가등기 중 가장 빠른 등기가 경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대항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2) 그 이외의 원인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 이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고, 다만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이들 등기일 이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 주민등록의 정정과 대항력의 발생시기

사실과 다른 주민등록이 임차인의 잘못된 신고에 의한 경우에는 특수주소 변경등에 의하여 사실과 일치하는 주민등록이 정정된 때에 대항력을 취득한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73 판결)

3. 대항력의 존속요건(주택인도+주민등록)

가. 의의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임차권의 대항력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경매의 경우 배당요구종기까지, 일반매매의 경우 신소유자의 소유권취득시까지)이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다카143 판결).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주택의 점유를 상실하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게 되면 그 때부터 대항력은 소멸하며, 다시 대항력을 취득하더라도 종전의 대항력이 부활하지 않는다.

나. 주민등록의 존속

(1) 임차인이 스스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경우
가족의 주민등록을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이탈하더라도 대항력은 유지되나(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다카143 판결) 세대원 전원이 주민등록을 이탈한 경우에는 대항력은 소멸하고 재전입한 때부터 다시 대항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695 판결).

(2)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

위장전입을 이유로 직권말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유효한 주민등록이 아니므로 처음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으나(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32939 판결), 무단전출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대항력이 발생하였다가 무단전출한 때 대항력이 소멸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판결)

4. 대항력의 내용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과 경매에서의 대항력을 구별해야 한다. 즉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구비하면 되나, 경매에서의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최선순위 권리(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구비해야 된다(민사집행법 91

조3항, 4항 참조)

가. 대항력의 의미

등기된 임대차와 동일한 권리, 즉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을 사용·수익할 권리, 기타 임차인이 가지는 부수적인 모든 권리(보증금반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를 임대인 기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나. 신소유자에 대한 대항력

주택임대차법 3조 4항(법률상의 당연승계)에 따라 신소유자가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즉 신소유자(양수인)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종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한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판결).

다. 종전 임대인의 지위

종전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므로 신소유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채무의 이행에 불과하므로 종전 임대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17324 판결)

5. 대항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가. 양수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대항력 발생시기와 가등기 시기의 선후에 따라 대항력이 미치는지 여부가 결정되고(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757 판결), 처분금지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가처분등기일자과 대항력 발생의 선후에 따라 대항력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양도담보가 임차권의 대항력 발생 전에 경료된 경우, 임차인은 귀속정산의 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양도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7682 판결).

나. 임차주택의 매수인에게 대항력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임차주택에 저장권, 가압류 또는 압류 담보가등기중 가장 빠른 등기가 경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대항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이 시점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다. 매매계약 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종전 소유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548조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제3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대법원 2009. 8. 22. 선고 2003다12717 판결).

라. 명의신탁자에게 대항력

주택 명의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주택의 처분권한을 중국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도 임차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9753 판결)

6.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1) 요건 = (주택임도+주민등록+확정일자)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법원·지원·군법원등기소, 주민자치센터, 공증인사무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68756 판결)

배당에서 다른 권리와 순위는 확정일자 부여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다만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주택임도와 주민등록을 마친'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97다22393 판결)

우선변제권의 요건도 배당요구종기까지 계속해서 갖추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7475 판결)

(2)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행사와 대항력 주장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권리를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도,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된 결과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법제3조의5 단서에 의하여 임차권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다.(선택, 순차행사 가능)

(3) 기타 쟁점

가. 우선변제의 대상

임차주택과 그 대지의 환가대금 전부이다.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정담보물권의 성격)

나.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거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므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관계(법제3조의5와 4조2항의 관계)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불문하고 배당을 받으므로(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3039 판결), 법제3조의5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으면 임차권이 소멸하고, 일부만 배당받으면 임차권이 존속한다.

대항요건을 구비한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대항력만 주장하면 매각이 되어도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고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 받을 수 있다.

7.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

(1) 우선변제권 행사 요건으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대항력을 갖출 것

(2) 소액보증금

가. 판단 시점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배당시'이다. 예컨대,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갱신과정에서 보증금액이 줄어 배당시에는 법에서 정한 한도 이하로 되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

☞ 다음 호에 계속

2024년도 표창대상자 및 장학생 선발 계획

▣ 표창 대상자 선발 계획

평산신씨 종중과 화수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한 종원을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그의 공적과 선행을 칭찬하고, 사기를 앙양시켜 종중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여 평산신씨 대중중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 표창자 선발 인원 : 10명 내외

2. 자격

- 가) 을미대동보(2015년 발간) 및 전자대동보에 등재된 상계가 분명한 종원.
- 나) 효자효부(평산신씨 종원 및 배우자)
- 다) 종중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종원(5년 이상 종중직무를 수행하거나 종중을 위한 헌성 또는 봉사로 종중 발전에 공헌한 종원)
- 라) 평산신씨 명예를 드높인 종원(국가사회를 위한 공로 및 명성으로 수상한 자)
- 마) 신청 : 파종중 및 화수회 각 1명
- 바) 5년 이내에 수상한 종원제외 (공로 및 명성으로 수상한 자)

3. 구비서류

- 가) 표창대상자 추천서 1매(공적내용 : 구체적으로 기재) - 파종중 회장 또는 거주지 시·도화수회장의 확인 날인
- * 양식 : 대중중홈페이지→사랑방소식→다운받기, 대중중 이메일, 전화로 신청
- 나) 을미대동보(2015년 발간) 또는 전자대동보 등재 사본 1부
- 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번호 생략분 발급)
- 라) 사진 : 반명함판 1매

4. 접수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월 28일 (기일 초과 시 제외)

5. 접수처 : 평산신씨 대중중(서울시 중구 수표로22 아세아빌딩 7층)

6. 표창자 발표 : 장학·상벌위원회에서 심의 후, 개별 통지하며 시상은 2024년도 정기총회에서 수여함.

장학생 선발 계획

효행정신과 송조돈중(崇祖敦宗) 사상을 드높이고 후진양성을 위해 2024년도 평산신씨 대중중 장학생 추천을 받고자 함.

1. 지급 대상 : 4년제 정규대학교 학생 중 2,3,4학년 재학생 (복학생 경우 1개 학기 이상 재학생 : 2023년 기준)

2. 선발 인원 : 20명

3. 장학금 지급액 : 1인당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2회) 총예산 4,000만원

4. 신청자격 및 성적기준(평균 4.5평점 기준)

- 가) 평산신씨로 2015년 대중중에서 발간한 족보(을미대동보) 또는 전자대동보에 등재된 종원.
나) 신청시(時) 전(前)학년 성적 (4.5기준)

그룹	학 교	평점
1	서울대, 포항공대(포스텍), 고려대(서울), 연세대(서울), 카이스트, 각 대학 의대(서울지역, 간호학과 제외)	3.4 이상
2	성균관대, 경희대(서울), 한양대(서울), 서강대(서울), 이화여대(서울), 중앙대(서울), 건국대(서울), 서울시립대, 동국대(서울), 홍익대(서울), 단국대, 경북대(대구), 부산대(부산) 전남대(광주), 전북대(전주), 아주대, 인하대, 서울과기대, 울산과기대(Unist), 광주과기대(Gist), 한국외대, 경찰대, 각 지역 의대, 서울지역대 간호학과	3.6 이상
3	기타대학(외국 대학교) 제외	4.0 이상

5. 장학금 지급 기간 : 선정된 당해 연도 1, 2학기

6. 장학금 신청 기간 : 2024년 1월 1일 ~ 1월 28일
(기간 초과 시 제외)

선정 방법

- 가) 선발인원 : 20명
나) 선정방법 : 성적 2개 학기 평균 평점
- 1) 소년소녀 가장 등 생활보호 대상자 평가 선발 (추천평가에 반영)
 - 2) 평가 선발
 - 성적평가 : 10명 → 前'4'항 성적기준(1그룹 5명, 2그룹 5명:1그룹에서 부족 시 2그룹에서 선발)
 - 추천평가 : 6명 → 前'4'항 성적기준 50%, (각 파종중 회장 및 화수회 회장의 공적과 기여도를 50%)
 - 특별추천평가 : 4명 → 대중중에서 헌신적으로 10년 이상 기여한 종원의 직계, 또는 사회적 선행을 하거나 모범생, 효자, 효녀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학생으로 각 파종중 회장 및 화수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

기 타

- * 동점인 경우 종종 임원의 자녀 우선
- * 선발자는 평산신씨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용모와 품행이 단정하여야 함.
- * 장학·상벌위원회에서 성적, 인성, 종종기여도 등을 엄격히 심사

구비서류

가) 소양시험지 제출(2021년 개정)

- 1) 평산신씨 홈페이지 회원가입
- 2) 전자대동보 보기
- 3) 본인 검색(본인과 아버지 이름 입력 후 검색)
- 4) 본인 족보 검색 후
 - 계통도 파조에서 본인까지 자필 작성
 - 책보기 : 5대조 이하(할아버지, 할머니의 생전 이름 한자로 기록하고 생신과 기제사(제사 날) 자필 기록
 - 상세보기 : 자필기록

▶ 계통도, 책보기, 상세보기 작성 후 인증 사진 첨부 제출

※ 서류 심사 시 소양시험지를 우선하여 심사.
(미 제출 시 심사 제외)

- 나) 장학금 신청서(대중중 홈페이지 다운로드) 1통.
다) 前 학년 2개 학기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각 1통.(복학생 포함)
라)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주민등록 뒷 번호 생략분)
마) 을미대동보(2015년 대중중 발행)나 전자대동보의 본인등재 사본 1통.
바) 반명함 사진 1매.
사) 본인 은행통장 사본 1통.
아) 생활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 1통.
(주민등록 뒷 번호 생략)

9. 장학금 지급

- 1학기 : 3월말 이내 - 2학기 : 8월말 이내

10. 지급 후 확인 절차

- 가) 장학금을 수령 후에는 납부한 등록금 영수증 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2주 이내 필히 대중중에 제출하여야 함.(대중중 주소 : 중구 수표로 22)
나) 군 입대, 휴학, 성적 미달자(2학기 해당 : 前 학기 성적보다 10%이상 미달자), 장학금 수령 후 미등록자 등은 지급이 중단(회수)됨.

▶ 장학금 신청서 ◀

- 홈페이지 : <http://www.pyeongsan.com>에서 다운받기
- E-mail : pyongsan777@naver.com으로 요청하기

종보 구독, 주소변경 : 02-776-6151, 6111

인사

▶ 덕양서원유적지 중증 회장 선출



- 신 동 진(申東珍)(밀직공파 35세손)
- 1958년 5월 4일 생
- 육군 장기복무 전역(20년)
- 전북 남원화수회 사무국장
- 밀직공파 전북회장
- 덕양서원, 용산단유적지 감사
- 선임 2023년 9월 25일 부

- 대중중 대의원, 장학·상벌위원
- 신동진 농장대표

▶ 申世源 (92세)

2023년 6월4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公께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대중중 문화부장을 재임하고 판사공파 중증 도유사를 역임했다.

슬하에 4남 2녀를 두고 장지는 영양군 일월면 선영이다.

2022년 11월 ~ 23년 1월 행사일정

[2023년]

- 11월 13일(월) 진사공 파조 향사(음 10월 1일)
- 11월 16일(목) 판사공 파조 향사(음 10월 4일)
- 11월 17일(금) 사간공 파조 향사(음 10월 5일)
- 11월 21일(화) 판윤공 파조 향사(음 10월 9일)
- 11월 22일(수) 이상공 파조 향사(음 10월 10일)

[2024년]

- 1월 20일(토) 중보 200호 발행 예정
- 1월 2일 ~ 30일 2024년도 표창자 및 장학생 선발 서류 접수

바로잡습니다.

중보 제197호

16쪽 중보 성금 중군(알수없음) ⇒ 인천화수회장
정섭(알수없음) ⇒ 경기분당

중보 제198호

16쪽 중보 성금 용덕(?) ⇒ 부산 해운대

중보 성금 보내주신 분 (2023. 7. 1 ~ 10. 20)

성금을 보내주신 종원님께 감사드리며, 알뜰하게 잘 쓰겠습니다.

개 인

동철(부산진구 개금동)	100,000	동성(경남 창원 진해)	20,000
동준(대구 수성구 들안로)	50,000	재준(전남 무안)	50,000
형철(광주)	100,000	경섭(경북 봉화)	30,000
남철(충남 서천)	30,000	인영((충남 천안 동남구)	50,000
대성(대전 서구)	30,000	민태(알수없음)	20,000
광현(경기 남양주)	20,000	진형(강원도 고성,토성면)	30,000
태철(서울 은평구)	50,000	현채(서울 광산구)	20,000
철호(경기 남양주)	50,000	현목(경기 화성시)	30,000
현석(경기 광주 곤지암)	20,000	알수없음	30,000
옥현(경기 광주 곤지암)	20,000	동일(부산,경남화수회)	50,000
주섭(경기 안산)	30,000	익철(부산 연제구)	30,000
현창(알수없음)	30,000	인섭(서울 동대문구)	100,000
현관(인천 서구)	30,000	한철(알수없음)	50,000
현우(서울 영등포구)	20,000	동성(경남 창원 진해)	50,000
행진(부산)	50,000	동린(서울 강동구)	20,000
창열(부,경회장, 경남 김해)	100,000	문철(충남 천안 서북구)	20,000
동성(경남 창원)	20,000	용주(경기 성남)	100,000

파종중

전서공파 중증	100,000	온수감 중증(문섭)	100,000
사간공파 구룡중증(평택)	100,000		

소 중증

밀직 집의공 중증(청주) 50,000

시,군,구 화수회

광주 광산구화수회 50,000

총 계 : 1,850,000원

〈중보 배부 기준 및 성금〉

- ★ 파종중 시·도화수회 : 50부 년 100,000원
- ★ 소중증 시·군·구화수회 : 20부 년 50,000원
- ★ 중 원 : 1부 년 20,000원

* 중보가 부족할시 10부당 성금을 20,000원 추가함.

중 보 성 금 : 하나은행 101-910005-90004 (평산신씨 대중중)
농 협 301-0202-9520-11 (평산신씨 대중중)

전자대동보 : 하나은행 027-766111-23504 (평산신씨 대중중)
우 리 1005-103-123259 (평산신씨 대중중)

구 독 신 청 : 02)776-6111 .776-6151

▶ 계좌 송금시 : 지역명을 반드시 표기 바랍니다. ◀